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연극·뮤지컬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연극·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23년 12월 8일(금) 10:00~18:00 / 서울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2차 인터뷰심의) 2023년 12월 18일(월), 19일(화) 09:00~19:00 / 서울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노은영, 엄국천, 신현길, 심재민, 정달영

해당 사업의 지원취지

“우리 시대의 예술은 공적 지원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창조될 수 없는가? 국가 및 공공 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예술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예술은 ‘제도화된’ 예술로서만 그 의미를 발휘하는가?” ‘지원금 제도’는 언제나 이러한 질문들을 전제로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예술가들에게 사유와 고민과 이해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연예술 창작주체 연극·뮤지컬 분야’ 사업은 기존의 네 분야, 즉 공연비평, 축제 운영, 창작공간 그리고 공연제작이 하나의 범주 안에 통합된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과도하게 세분화된 지원 사업들을 큰 틀 안에 결집하면서 지원 방식을 어느 정도 단순화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1차 서류심의를 위한 위원회 모임에서 먼저 심의기준 및 심의 방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심의위원들은 사업별 지원심의 세부기준과 관련해서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지원자의 활동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 50% 향후 3년간 활동 목표 30% 현장의 파급력 및 기대효과 20%)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2차 심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차 심의는 1차 심의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을 1차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좀 더 심층적으로 심의(사업 계획의 진정성, 지원목적 부합성, 파급효과,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관점)하며,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의 종합 토론을 통해서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배정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지원심의 평가 방법은 1차 및 2차 공통적으로 채점제로 운영하며, 심의기준별로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의위원별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하였습니다. 심의위원별 채점 등급은 각 신청 사업들 간 상대평가 및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각각 A 95점 B 85점 C 75점 D 65점 E 50점으로 환산 적용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지역 불균형 지원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지원제도’를 적용하며, 기준비율은 본 사업의 비

수도권 신청비율(19.9%)이 창작 분야 공모사업의 기준비율(27.7%) 미만에 해당되므로 따라서 비수도권 신청비율, 즉 19.9%를 최소 선정비율로 유지합니다. 여기서 비수도권은 개인 및 단체 등록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인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창작공간’ 사업은 본래 중소 규모 민간단체 운영 지원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며, 따라서 대형 공연장을 위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심의위원들은 합의했습니다. 차후에 대형 규모를 지원하는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제척사유에 따라서 심의 회피제도를 실행한다는 것을 숙지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신청 건수는 총 145건이며, 심의 대상은 143건이었습니다. 2건은 사전 행정심의 결과 지원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미제출로 인한 결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1차 서류심의 결과, 80점 이상을 얻은 57개 단체가 종합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비평 3건, 축제운영 19건, 공연제작 19건, 창작공간 16건이 이에 해당됩니다. 2차 인터뷰 심의는 이들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첫날은 공연비평 축제 운영 창작공간을 대상으로, 둘째날은 공연제작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차 심의 결과 연극 분야 선정단체와 액수는 총 43개 단체, 45억1천만원((3개년) 21단체, 25억 8천8백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수도권은 10개 단체(23.3%)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공연비평’ 분야는 총 3개 단체, 5천6백만원 ((3개년) 1단체, 2천6백만원)이며, ‘축제운영’은 총 13개 단체, 17억2천7백만원 ((3개년) 2단체, 5억4천만원), ‘공연제작’은 총 12개 단체, 13억3천5백만원 (모두 3개년), ‘창작공간’은 총 15개 단체, 13억9천2백만원 ((3개년) 6단체, 6억8천7백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단체들 중에는 예산 책정에 비해 실제 공연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띄었으며 따라서 계획 자체가 다분히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지원금 규모를 과다책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체의 역량과 규모에 적합한 사업 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선정된 단체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사업이 현장을 반영하는 좀 더 완벽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원 결과와 관련하여 신청 단체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연극·뮤지컬 분야 심의위원 일동